

AUTHOR 이근삼

TITLE 사회를 향한 개혁신자의 자세

IN 고신대학보

vol. 33 (September, 1997): 18-25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신령에 의하여 信者의 것이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義가 믿는자에게 轉嫁된다. 거기에는 이미 새 삶이 시작되었으며, 새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새 사람에 의한 새로운 善한 행실이 산출되고 있다. 비록 인간의 선행이 완전하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할찌라도, 그러나 信者는 새롭게 된 자로서 구원의 확신과 완전성화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신한 생활을 하게 된다.

改革主義 信仰은 律法의 義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께서 律法의 義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完全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의롭게 된 信者는 새롭게 된 良心을 가지고 하나님의 律法 앞에서 自己의 罪를 認識함과 동시에 罪의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確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律法에 얽매이는 종으로서가 아니고, 律法에서 해방된 自由人으로서, 자진하여 律法을 사랑하고 律法의 義에 순종하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앞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내적동기에 의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된다. 律法의 完成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은 人間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歷史적으로 具體化되었다. 人間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十字架를 통한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에 비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이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계명에 순종할 때 계명을 참 지키는 것이 되며 그것이 신한 행위가 된다.

改革主義 信者는 어떤 의미에서도 도덕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않된다. 우리의 義가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못해서는 않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적으로 계명을 해석함으로 계명이 담고 있는 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도 않될 것이다. 순종이라는 행위 속에 사랑이라는 정신이 담길 때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며, 그것이 人間의 참 善行이 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

사회를 향한 개혁신자의 자세

이 근 삼\*

1. 基督信者와 지상환경

1)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치 질서 회복



이 세상에서 人間은 본래 創造 世界 중에서 主人이며, 관리자로 지음 받았다. 이 世上은 그 모든 선함과 풍성함이 사람의 所有가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지어졌고,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을 자유로운 良心과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즐길 能力을 받았던 것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萬物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사8:6)

그러나 人間이 타락함으로 온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創造의 참 질서대로 사는 使命을 거부함으로 자기 주변의 世界에 대한 人間 自身의 主人된 權利와 地位를 상실한 것이다. 칼빈은 "세계정복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로 부터 빼앗기고 말았다. 타락한 人間이 이 世上을 사용해야 하고, 이 世上의 生産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人間은 그렇게 할 權利가 없다. 그 理由는 이 世上은 하나님의 子女를 위한 世界인데, 人間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子女된 身分을 배반함과 동시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權利없는 도적처럼 살 수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그 증거로 萬물이 이 世上에서 統治의 權利가 없는 人間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 (창3:19; 롬8:19,22) 그러나 이 世上에 대한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 참된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

\* 고려신대 교수

안에서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所有權을 주셨다. 이것은 시편 8편의 약속의 성취이다. 거기에 보면 創造의 原計劃과 이 宇宙에 대한 人間의 참된 신분을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養子가 되어 다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 創造世界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의 權利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世上에서의 일상생활에는 信者의 입장과 不信者의 입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不信者는 그의 生의 유지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부터 그것을 취할 權利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그의 子女들로 부터 약탈하고, 계속적으로 제8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 2) 지상생활에 대한 信者의 새로운 關係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질서의 회복은 그리스도와 聯合되고,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 현재 여기 이 지상에서도 저희 환경에 대한 새로운 關係를 즐길 수 있다.

칼빈은 창3:19의 주석에 있어서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一般的으로 저야 할 日常生活에서의 중노동의 저주는 옮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子女들에게 그 무거운 짐에 문히지 않도록 저주의 일부를 종종 옮겨 주신다. 그리고 그런 수고를 信仰의 희생으로 알고 肉을 정복하는 十字架로 받아 들임으로써 信者는 저주 속에서도 勝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信者들에게 特殊한 方法으로 섭리적으로 이 世上의 生을 통하여 저희를 惡에서 特別히 보호하시고 祝福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유지시키시지만 하나님이 그의計劃과 뜻을 特別히 행사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聯合된 자들의 구원하심과 저들의 시험과 환난, 사탄의 惡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子女는 하늘의 기입과 현재의 靈的 祝福을 위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世上生活의 條件에 대해서도 祝福을 받는다. (시 25:13; 128:3) 信者가 그의 生活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로 創造의 참된 질서에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世上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표이다. 하나님 나라의 完全實現과 그 성취는 우리의 완전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信者에게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이 지상소유를 지금 실현시키신다. (시 85:13)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世上에서 너무 애착하거나 세상과 동류가 되어 오는 永生의 所望을 잊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子女에게 환란이 오고 지상생활의 즐거움이 제한되어 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子女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씀이 가공적 허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전하시고, 위로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므로 저희가 이 땅의 기업이 될 줄 알 수 있다.

## 3) 生의 有益은 감사와 믿음으로 인식

信者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世上을 가지며 즐겨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고전 10:26)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만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에 의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정당한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표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용과 즐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不信者처럼 不純한 良心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世上의 有益과 즐김을 가질 때 사람의 良心이 깨끗해질 수 없고, 피조물의 사용이 그에게 기록해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生의 유익을 참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法的으로 이 世上의 主人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世上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으니 참 감사함으로 받고 (딤후 4:1),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된다. (고전 10:31)

## 2. 基督教 信者와 勞動

로마교에서는 物質의 世界를 惡으로 보고 성도는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래서 로마교 신자는 結婚이나 商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靈性은 物質的, 肉體的으로 후퇴함으로 聖域 즉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외적의식을 행함으로써 된다고 한다.

그러나 新教에서는 惡을 內的인 것으로 본다. 막 7:20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함과 같이 世界의 物質的 資源은 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創造하여 人間에게 주셔서 사용케 한 것이다 (창1:26, 28, 3:19) 노아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셨으며, (창9:1~2) 다윗도 시편에 같은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8:3,4, 6)

사람은 靈的 存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基本的 目的 중의 하나는 世界의 自然的 資源을 敬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요5:17) 이 基本的 命령에 不忠함으로 우리는 不信者들에게 하나님의 目的과 本質을 보여주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目的이 무엇인가? 信者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支出을 메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이 原理를 우리 信者는 비록 남의 종이나 고용인이라도 알아야 한다. 바울은 골3:22, 23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한다.

### 2) 충 성

우리는 무슨 일이나 열심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야하고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살전4:11, 12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중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 資源을 최대한 유용한 자를 칭찬하고, 적다고 무용케 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 그러므로 信者의 의무는 자기의 재능(肉體的, 精神的)을 따라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지혜있는 판단

마음을 잘 훈련한 사람과 그것을 건설적으로 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問題를 잘 생각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잘 감안해서 충

요한 결정을 확신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無知와 先入感으로 하지 않고, 知識에 근거해서 한다. 그러나 이 知識은 大學教育에서 얻기는 하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주의 깊은 수년간의 經驗이 따라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는 信仰의 知識이 필요한 것이다. 產業管理의 一般的 失敗는 일하는 時間보다 저희가 마음을 일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 信者는 不信者와 다르게 의식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위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봉사표준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세운 표준은 남이 우리에게 세워준 것 보다 더 높고, 더 강한 것이어야 한다. 남이 하라는 것 보다 더 우리 자신의 일에 세밀하고 批判的이어야 한다. 信者는 자신을 높은 標準에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며, 發展시키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

우리가 높은 標準과 정직한 마음을 本質로 할 동안 우리는 실패한 일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다. 長時間만으로는 不充分하다. 信者는 자기 달란트를 全的으로 사용하고, 全力을 다해서 상 받을자는 하나뿐인 것 같이 쓰는 경주를 달리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우리의 경주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결단과 인내와 남이 쉴 때 계속하는 능력과 필요하다면 급진을 위한 보류도 할 줄 아는 것이다.

### 3. 基督信者와 富

信者의 일에 대한 態度는 富를 결과적으로 증진시킨다. 聖經은 富 자체를 定罪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一萬惡의 뿌리는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땅의 產物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멸시할 것이 아니고, 自然의 豊요는 사용되기 위하여 있다. 만일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한 것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靈的 실감에 이끌기 위해서 빈곤을 사용하며, 사도들과 같이 빈곤생활을 가지게도 하셨다. 그리고 빈곤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聖經은 富의 量이 問題가 아니고, 취득방법, 사용방법, 富에 대한 心的 態度가 문제가 된다고 가르친다. 딤후 6:17, 18에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한다. (참조: 딤후6:6-10, 약1:10)

### 1) 재물의 취득방법에 대한 주의

聖經은 富의 잘못된 취득을 많이 경고한다. "도적질 하지 말라"(출20:15),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렘22:13),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약2:6),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 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약5:4)

이렇게 聖經은 우리가 자아방어를 할 수 없는 빈자를 압박함으로써 富를 증대시키는 것을 금하고 책망한다. 富의 所有는 그 所有者에게 전통적으로 세력이 따른다. 農業國家에서도 이 세력은 큰 농토가 富農家의 손에 집중하게 됨으로 가난한 자들이 다른 취직장소가 없어져서 富農家의 제정하는 규약에만 따라 一方的으로 고용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勞動力의 獨立性을 弱화시키고, 고용주의 經濟的 立場을 有益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勞動에 상당한 품값을 종업원들에게 다 주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産業國家에서는 一般的으로 부자의 압제를 벗어나 빈자의 힘을 強化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른 취업장소가 있다. 그처럼 産業國家 또는 地域에 있어서도 경제세력의 집중에 반대하여 취업원을 풍부하게 함으로 市民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産業勢力이 國家의 손에 집중하는 것도 國家가 단조로운 獨占을 잘 이용한다고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聖經에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目的도 同一하다. 原理는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富는 이웃의 福을 위해서 사용될 委託物이지 이웃을 헤칠 물건으로 맡겨진 것은 아니다.

가장 알미운 돈 만드는 方法은 사람의 靈的 恐怖와 不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돈을 聖經에 바울은 "더러운 이를 탐하는 것" (딤후3:3, 딤후1:7)이라 하였고, 베드로도 "더러운 利"(벧전5:2)라고 하였다.

### 2) 富의 使用

富는 언제나 세력을 얻기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放縱, 誇張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信者에게 그런 富의 사용은 금물이다. 그러면 어디에 그 선을 그을 것인가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富가 많아지면 責任도 증가한다. 책임진 자의 책임 성취와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자가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新約聖經에, 특히 교회지도자들은 손대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물질을 보통 이상으로 가진 信者에게 주어진 特殊任務이다. 그런데 만일 信者가 그의 성취와 富를 자신과 근친가족에게 극한 시킨다면 그 生은 오히려 貧한 것이다. 학생이나 나그네였던 信者가 신자집에 초대를 받고, 신세를 졌던 일에 감사함으로 기억할 것이다.

信者가 世上物質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자기보다 不幸한 자에게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聖經은 가르친다. 그러나 信者 자신을 위한 돈의 使用은 다르다. 사치를 금하고 子女教育에 지나친 낭비를 하지 말 것이며, 탐심에서 오는 물질 남용을 금하고 있다.

### 3) 富에 대한 心的態度

탐심은 貧者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다. 탐심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所有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 단란한 家庭, 정원, 가구, 휴식일, 음악감상 등 그 자체는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물질적 혜택을 주려고 일하거나,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자기 집을 돌보고 다스려야 한다. (딤후5:8) 부모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다. (고후12:14)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되 정직하고 성실한 일로 하고, 他人의 것을 좋아함으로써든지, 자신의 특수기술의 부족한 것을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 안된다. 基督教 企業人은 이윤이 정말 經濟的 規定일 경우에 최대이윤을 가지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나 고객들에게 자기 특수능력을 지나치게 이용할 마음으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 종업원에게 최대가치를 주는 經濟行爲를 최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目的이라야 한다.

맺으면서

이상과 같이 基督信者와 社會, 특히 우리의 주변인 世界와 物質, 勞動과 財物에 대하여 몇가지 재언을 하였다. 信者의 社會에서의 任務는 不信者의 것보다 가중하다. 그 理由는 信者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神이 世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任務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빛은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비로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信者의 임무가 가중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녹고, 소모되는 일이 없이는 주님의 명하신 任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信者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며, 그것은 또한 人間 社會를 맛있게, 그리고 밝혀주는 일인 것이다. ■

社 告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금번 본 고신출판부에서는 각 교회에서 발간되는 인쇄물과 개인이 발행한 도서를 수집, 정리하여 자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출판부로서의 활동을 위한 이 계획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x x x

- 1. 용 도 : ① 교단내의 출판관계의 자료, 통계 조사  
② 우수 내용의 발췌 소개 및 서평
- 2. 종 류 : ① 교회 간행물—주보, 기관지(교회, 청년회, S.F.C. 등) 교육용 각종교재물, 성가곡집 기타  
② 개인 저서—작품 저서, 논문집
- 3. 보 낼 곳 : 600 부산시 서구 압남동 34  
고려신학대학 고신 출판부

생활적인 측면

모든 영광을 주께로

(Soli Dei Gloria)

김 만 우\*



우리 교단의 중심 개념은 복음적 보수신학, 개혁주의 신앙, 순교정신일 것이다. 복음적 보수신학은 성경관과 관련하여서 자유주의 신신학과 대칭되는 말로써 성경의 만전영감, 정확무오성, 절대권위를 신학의 근거로 삼는다. 이성 제일주의나 감상적인 신비주의와는 달리 신앙과 행위, 신학과 교회의 표준을 성경에 둔다. 성경은 보수신학을 성립케 하는 열쇠인 것이다. 성경주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이 전승시킨 신앙체계로써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실현코자 하는 성경중심의 신앙이다. 넓은 의미로는 신교의 신앙체계를 말하나 오늘날은 좁은 의미로 청교도들과 그에 상응하는 개혁 신앙 집단이 나타낸바의 신앙체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보수신학이 성경중심의 신학체계라면 개혁신앙은 성경중심의 신앙체계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의 구조 안에 특징적인 몇가지 용어들을 포함시킴으로 개혁주의 신앙의 틀을 이해하려 한다. 그것은 곧,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Soli Dei Gloria), "진적인 헌신봉사"(Cor meum tibi offero Domine), "교회의 계속적인 개혁"(reformanda ecclesia quia reformata),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신전의식 등의 개념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포함된다. 개혁주의 신앙도 성경주의 신앙이다. 보수주의 신학이 정통의 보수라면 개혁주의 신앙은 보수된 정통에 의하여 실존과 상황을 끊임 없이 개혁, 변화, 발전시키려 한다. 세상

\* 서울 시문교회 담임목사